



해외 우수대학에서

한국 대학의 발전방향을 찾다

1. 방문대학

📌 NUS (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) : 싱가포르 국립대

- QS 랭킹('19년 기준) 세계 11위, 아시아 1위
- THE 랭킹('18년 기준) 세계 22위, 아시아 1위
- 학부생 : 29071명, 대학원생 : 10793명

📌 NTU (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) : 난양이공대학

- QS 랭킹('19년 기준) 세계 12위, 아시아 2위
- THE 랭킹('19년 기준) 세계 51위
- 학부생 : 23753명, 대학원생 : 8900명



📌 ETH Zurich : 취리히 연방공대

- QS 랭킹('19년 기준) 세계 7위
- THE 랭킹('19년 기준) 세계 11위
- 노벨상 25명 배출

- 학부생 : 9517명, 대학원생 : 10765명. 2 -

ETH Zurich : 황거베르크 캠퍼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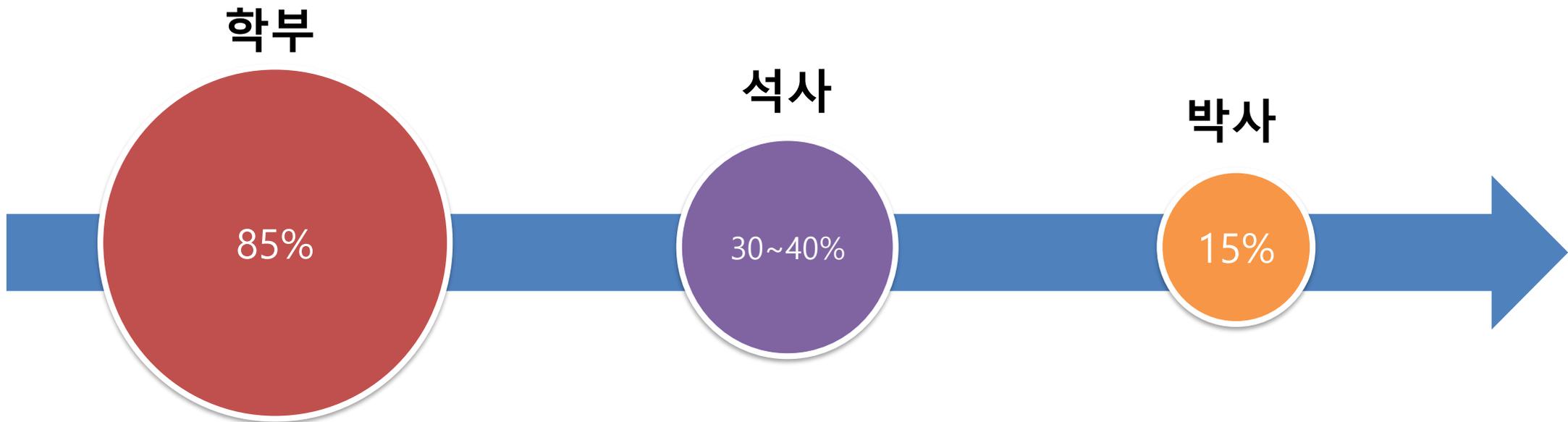
2. 싱가포르

❖ 싱가포르 자국민은 대학 졸업 후 대부분이 취업

구 분	취업률	초봉 평균
전체(국립/사립)	84%	2,550SGD(약 2,200만원)
주요3개 대학(NTU,NUS, SIM)	90%	3,325SGD(약 2,900만원)

출처: 2017년 싱가포르 정부 산하 CPE(council for Private) 조사 결과

❖ 반대로 싱가포르 자국민은 대부분이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음



2. 싱가포르

📌 NTU, NUS는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연구인력을 확보 (박사과정)

SINGA(Singapore International Graduate Award) :

-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, 4년 지원, 공학/과학 분야
- 월금액(연간 약 2천만원) + 학비 지원 + 주거보조금 1회(약 850만원)
+ 항공비 보조금 1회(약 130만원)

📌 NTU는 우수한 교원을 별도의 트랙으로 임용(NanYang Associate Professor 제도)

- NAP교수 : 독립적 연구공간 배정과 독립적인 연구진을 채용하여 구성
- 난양공대 조남준 교수의 경우 조남준 교수 이외에 2명의 시니어 박사급 연구진 2명까지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채용된 사례
- 채용된 교수의 25-30% 수준이 테뉴어를 받으며(NAP제도로 채용된 교수의 50% 수준만 테뉴어 통과), 테뉴어를 받지 못한 교수는 다른 대학으로 이직
- 난양공대 대부분의 교수는 싱가포르 내 대학의 박사 출신이 아닌 해외 우수대학에서 유학한 우수 연구인력을 교수진으로 채용
- NAP교수는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지 않으며, 조교수가 정교수의 급여보다 많은 사례도 존재 (전년도 연구성과에 따라 매년 연봉이 성과급으로 책정)

3. 스위스 (취리히 연방공대)

❖ 취리히 공대의 경우 교원을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엄격한 절차를 걸쳐 채용 (총 400명 수준)

- 테뉴어 트랙으로 채용된 교원의 경우 테뉴어 심사 통과 시 20년 이상의 장기 근속 (약 23년)
 - 취리히 연방공대는 로잔공대와 함께 연방정부에서 지원받는 대학 (스위스 연방정부에서 지원)
- * 위 2개 대학 이외에 스위스 대학은 주정부(칸톤)에서 지원)

❖ 취리히 연방공대의 가장 큰 강점은 Science and Technical Staff

- 5964명의 Science Staff (박사과정생 포함), 1427명의 Technical and IT Staff
- 교원의 수가 적은 만큼 연구를 지원하는 인력이 다수이고, 그 외에 연구기기를 운용하는 테크니컬 스텝도 타 대학에 비해 많음
- 대학 행정인력도 박사출신이 많음 (이성식 박사 인터뷰)